2026 수능 대비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교재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쪽수	위치	수정 전	수정 후	최종 수정일
해설지 19쪽	5일차 39번 문제 ⑤번 해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의 문장을 '그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의 문장으로 수정할 때, 새롭게 넣은 관형어는 '지어낸'과 '역사적'이다. 이때 '지어낸'은 동사 '지어내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용언 활용형으로 보어 '거짓말이'에 쓰인 체언 '거짓말'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역사적'은 관형사로 서술어 '사실입니다'에 쓰인 체언인 '사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조건 역시 만족한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의 문장을 '그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의 문장으로 수정할 때, 새롭게 넣은 관형어는 '지어낸'과 '역사적'이다. 이때 '지어낸'은 동사 '지어내다'에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결합한 용언 활용형으로 보어 '거짓말이'에 쓰인 체언 '거짓말'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조건을 만족한다. 또한 '역사적'은 관형사로 서술어 '사실입니다'에 쓰인 체언인 '사실'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의 조건 역시 만족한다.	2025. 07. 23
해설지 38쪽	10일차 36번 문제 ③번 해설	③ '죄송하지만 저는 그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에서 '저'는 1인칭 대명사로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고, '전 사람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영화배우입니다.'에서 '저'는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멀리 떨어진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두 '저'는 형태가 갖고 품사가 서로 다르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므로 품사 통용의 예로 볼 수 있다.	③ '죄송하지만 저는 그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습니다.'에서 '저'는 1인칭 대명사로 자신을 낮추어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고, '전 사람이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영화배우입니다.'에서 '저'는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로 화자와 청자에게서 모두 멀리 떨어진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 두 '저'는 형태가 갖고 품사가 서로 다르지만 의미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의어이므로 품사 통용의 예로 볼 수 없다.	2025. 07. 23

※ 위 내용 외의 교재 오류는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누리집(http://www.imaginecne.com)의 Q&A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확인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류 없는 교재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